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1

쿠바, 영화 그리고 기억

박종욱 지음 | 204쪽 | 14,000원

오랫동안 서구의 헤게모니에 짓눌려 뒤늦게 자립한 쿠바는 곧이어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극단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 쿠바인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인식하고, 그와 직면하여 극복하려는 시도로서 영화가 지닌 의미를 '쿠바 영화와 피식민의 트라우마'라는 주제로 다룬 것이다.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2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

송병선 지음 | 268쪽 | 19,000원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영화 시장은 오랫동안 미국계열의 배급사와 자국 배급사와의 불공정 경쟁 관계에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영화는 미국의 영화와 어떤 변별성을 지니면서 자국의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발전할 수 있었는지, 라틴아메리카의 신영화는 라틴아메리카 영화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시리즈 14

한국학술정보(주), 이담북스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자 합니다.

blog 블로그 : http://blog.naver.com/ksiblog

페이스북 : '이담북스' 검색

마야 원주민의 전쟁과 평화 정혜주 지음 이담북스

유까딴의 까스따 전쟁은 1847년에 발발하여 1901년까지, 약 54년간 계속되었다. 약 7년간의 폭력적인 전쟁 기간(1847–1854)과 마야 사람들이 반도의 북동쪽의 밀림으로 물러나서 47년 동안 살았던 기간(1854–1901)을 말한다. 까스따(Casta)는 계급을 의미하는데, 전쟁의 이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피지배와 지배, 원주민과 백인의 사회 계급적이고 인종 대립적인 전쟁이었다. 당시 유까딴에는 라디노(ladino)라고 부르는 스페인의 후예인 끄리오요(Criollo)와 스페인과 마야 원주민의 혼혈인 메스띠소(Mestizo), 그리고 마야(Maya) 원주민이 있었다. 이 모든 사회계급의 사람들이 뒤엉켜 싸운 이 전쟁은 "마야의 사회전쟁 (Guerra Social Maya)"이라고도 부른다. 까스따 전쟁의 특별한 점은 무엇보다 멕시코 역사상 가장 처절한 유혈 전쟁이었다는 것과 54년간 지속된 오랜 반란 기간이다. 약 7년(1847–1854)간의 폭력적인 시기를 지나 1854년부터 1901년까지 4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아메리카 대륙에 유럽 사람들이 들어온 이후에 유일하게 "원주민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가 세워졌었다.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 14

마야 원주민의 전쟁과 평화

정혜주 지음

유 까 딴 1 8 4 7 ~ 1 9 0 2

이담북스

정혜주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멕시코국립대학(Universidad Autonema de Mexico)에서 치첸 이쯔아의 마야문명 고전기에서 후기고전기로의 변천상황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 받았다.

전공은 마야토기분석 및 연대측정이다. 마야사람들이 남긴 '물건'에만 집중하였던 관심을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의 영웅신화』 『멕시코시티』 『여정의 두루마리』 『중앙아메리카, 치아빠스와 유까딴 여행에서 있었던 일』 등이 있다.

본 도서는 인문한국(HK) 해외지역연구소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학술총서시리즈입니다.

이담북스는
한국학술정보(주)의 지식실용서 브랜드입니다.